
현대장신구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성향

Analysis of Tendency of Minimalism Appearing in Contemporary Jewelry

이주현

대림대학 재료정보과

Joo-Hyun Lee(jhmind@hanmail.net)

요약

본 논문은 현대장신구속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성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신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 장신구속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개념적, 형태적 그리고 조형적 성향을 연구하였다. 미니멀 아트는 시각적 단순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흥을 주었고, 이는 '장식'에 치중해 왔던 기존의 디자인의 개념을 변화 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특성과 장신구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 중심어 : | 미니멀리즘 | 장신구 | 미니멀리즘 장신구 | 기하학적 표현 | 단순성 | 반복성 |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tendency of minimalism shown in the contemporary jewelry. For this purpose, we figured out the property of personal ornaments, and studied the conceptual, formal and formative tendency of minimalism shown in the jewelry. The minimal art gave a new inspiration to the people who preferred a visual simplicity, which had much effect in shifting the concept of the previous design which laid stress on "Ornaments". Therefore, in this thesis, we would analyze the property of such minimalism and the tendency appearing in the jewelr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variety of design with its application.

■ keyword : | Minimalism | Contemporary Jewelry | Minimalism Jewelry | Geometrical Expression | Simplicity | Repetition |

I. 서론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부정확하고 한마디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복잡한 현 시대에 장신구의 흐름도 일관적인 파악이나 진보의 단순한 개념 안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 특히 현대사회는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양식

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가꾸고 추구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현대 장신구 역시 고정되어진 미의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에 따라 디자인이 완성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또한 부의 상징이나 장식적 개념을 지녔던 기존의 장신구의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변화·확대되어지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면서 미니멀리

즘도 장신구의 한 표현양식이 되었다. 따라서 '장식지향 이 아닌 장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써의 미니멀리즘 장신구가 현대장신구 경향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니멀 아트가 현대장신구에서 어떠한 형태로 표현되는지 그 성향을 분석하여 현대장신구의 개념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신구 디자인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미니멀리즘의 특성과 현대디자인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고찰

1. 미니멀리즘의 개념 및 표현특성

1.1 미니멀리즘의 개념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비평가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1937년 존 그래함에 의해 정의되어지고, 영국의 비평가 리처드 불하임이 「Art Magazine」지에 발표한 「미니멀 아트(Minimal Art)」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일반화되었다[1].

이 사조는 작가 자신의 표현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였고, 작가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며,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형태를 근원적인 물체로 환원시킴으로써 종래의 회화와 조각 개념간의 경계선을 와해시킨다. 최소한의 것으로 축소된 예술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그 안에 내재된 의미는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주의의 표명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결국 미니멀 아트의 본 뜻은 인간 및 사물의 어떤 형태를 추상화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인 요소 또는 본질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이것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관심은 결과적으로 형태나 색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환원시키게 되며, 그 자체 이외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니멀 아트는 모더니즘의 자기 환원적 성격을 그 극한 대까지 실현함으로써 형식주의로 일컬어지는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꼽을 수 있다.

1.2 미니멀리즘의 표현적 특성

미니멀 아트는 단순성, 반복성, 물체성, 전체성, 단일성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한 원형, 장방형, 입방체, 원통형 등의 기본적인 형태에 의한 작품 표현 방식은 미니멀리즘이 왜 'Primary Art'로 불리는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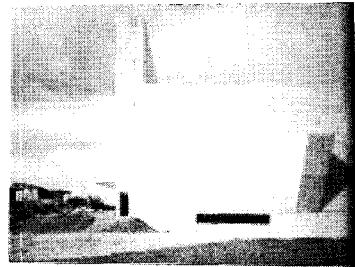


그림 1. Ignacio Vicens, Jose A. Ramos

이는 비재현적 예술을 지향하는 모더니즘 회화의 이상과 맞물려 조형 요소의 순수성을 추구하고, 순수성에 대한 집념은 형태의 순수성과 색채의 자율성을 뜻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결국 추상의 방법으로 전개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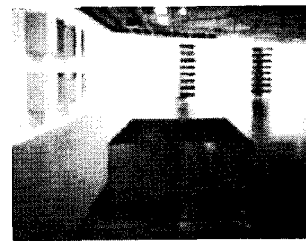


그림 2. Donald Judd, Untitled, 1972

가. 단순성

미니멀리즘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했으며, 이미지와 조형요소를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환원시켰다. 따라서 감상자로 하여금 형태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분이 아닌 전체를 강조, 원이나 정육면체 등의 단일 입방체 사용이나 통일된 사이즈의 사용, 단색의 사용 등으로 단순함을 강조한다.

나. 명료성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회화는 크기나 모양, 캔버스, 물감의 유동적인 농도, 오브제로서 회화의 가장자리를 명확하게 하는 선 등에 의해 정의된다. 이는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이 명료성임을 시사해준다. 명확한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색채나 소재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순수한 색조 대비와 비교적 개성 없는 색채, 알루미늄, 강철 등의 공업재료의 사용 등으로 명료성을 획득한다.

2. 미니멀리즘과 현대 디자인

디자인 분야의 철학적 개념은 대부분 예술분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디자인 분야로 적용되는 패턴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과 가구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이며, 이전의 것과 새로운 것이 늘 공존하면서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특히 미니멀리즘이 다른 다양한 예술사조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한다.

2.1 현대 건축 속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현대의 미니멀리즘 건축은 최소한의 표현과 재료적 특성을 극대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부터 이미 미니멀리즘적인 형태를 가진 건축들이 발견되나 현재와 같이 통일된 양식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신 합리주의나 형태주의와 같은 양식들의 기본적인 주변 표현방식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미니멀리즘 건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 건축의 다양성은 순수하고 조형적이며 형상적인 탐구와 영역성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통한 시적 표현, 오브제의 투명성과 비물질화를 통한 표현 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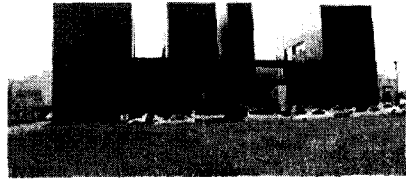


그림 3. 김현, 한길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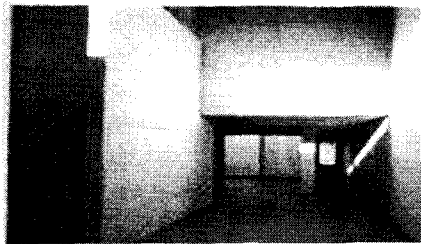


그림 4. Adolf Krischanitz, Gribaudo, 2003

현대 미니멀리즘 건축은 기존의 다른 사조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과 반론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미니멀리즘 건축의 표현은 분명히 다른 사조들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새로운 수는 없었던 것과 같다. 건축은 사회, 문화, 역사와 그 이전 건축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 건축과 영향을 주고받은 현대 건축 사조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사고들은 현대 철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2.2 가구디자인 속의 미니멀리즘

최근 들어 단순한 형태를 추구하는 가구들을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의미에서의 미술사적 정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의 조형수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미니멀리즘은 고도의 정신세계를 장식이나 컬러를 배제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극도의 절제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가구 디자인은 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나무에 차가운 질감의 금속이나 유리 등을 혼합한 가구 스타일로, 재질은 가죽이나 나무 대신 면처럼 편안한 느낌의 패브릭을 주

로 사용하고, 패브릭에는 패턴 대신 깔끔한 단색이 즐겨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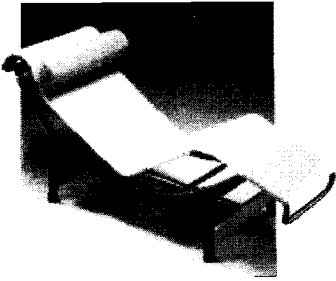


그림 5. Le Corbusier, Chaise Longue, 철재, 1928

또한 디자인도 심플해지고 장식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 된 선의 불박이장과 공간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는 낮은 침대 및 소파가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심플해진 반면 그 기능성은 더욱 강조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구, 형태의 조립이나 배치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는 가구 등이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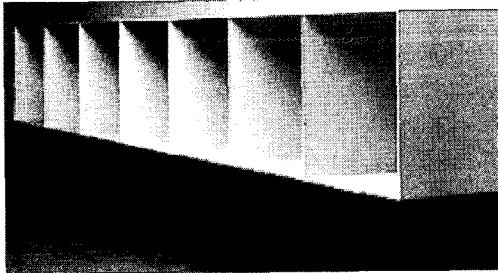


그림 6. Maarten van Severen, 7V90 Bookcase

3. 현대 장신구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3.1 장신구의 특성

장신구란 신체부위에 직접 착용하는 장식품과 의상을 입은 표면에 장식을 붙이거나 매거나 늘어뜨리는 소품과 모든 장식목적에 필요한 도구까지 포함시켜 말한다.[3] 장신구는 그 자체로도 한 시대 또는 문화를 나타내는 고유한 양식을 지니고 있으며 의생활 가운데에서도 미적 가치를 장식적으로 돋우고 민족의 상징적인 표

현방식으로 외형적인 역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류는 석기시대부터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의 장신구는 주술적 의미나 자기보호를 위한 호신적 상징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장신구의 정신적 기능을 보여준다[4].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신구의 착용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의지였다.

초기 장신구의 소재로는 동물의 뼈나 털, 조개, 보석류를 사용하여 장수와 건강, 부와 행운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여겼다. 원시인들은 그러한 장신구의 형태로 자연스러운 미와 힘의 승리를 과시하고 지배자들이 권력의 상징으로 이것을 몸에 장식함으로써 불행이나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5].

현대에 이르러서는 패션이 다양화·개성화 되면서 패션스타일의 구현에 있어서의 장신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장신구 개념의 혁명을 의미한다. 장신구는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표현함에 있어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조형적인 요소로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표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신적 수단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이 요구 된다[6].

장신구는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표현 하는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착용자의 생활 정서를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미적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장신구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인간의 경험, 판단력, 솜씨, 조형능력과 예술성 등이 집약되어있는 것으로 이를 착용함으로써 대중들은 한층 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삶에서 활기와 윤택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장신구란 새로운 경험과 미학적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며, 착용자와 이를 보는 이의 정서와 감정의 전달을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고 혹은 정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신구는 착용 가능한 조각품(Wearable Sculpture)으로써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착용자와 함께 이동하며 한 시대의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예술품’이 되기도 한다.

3.2 장신구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성향

미니멀리즘의 경향은 각 장르가 다루고자 하는 매체의 차이로 인해 각 예술분야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능을 가진 개체인 장신구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 작품의 특성은 재료, 형태를 구성하는데 있어 '절제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분야의 미니멀리즘은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재료의 본질과 이를 통한 정신적인 완전한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미니멀리즘은 재료와 정신의 본질적 표현의 두 가지 의미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 장신구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성향 중 객관적 명료성, 물리적 형태 그리고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객관적 명료성

미니멀 아트의 객관적 명료성은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체로 하여 선험적 체험을 유발시킨다. 즉 시각적 반응을 통하여 경험의 본질과 그 인식 가능성을 직접 다룬다. 그러므로 기하학이 강조되는 반면에 표현적 기법은 회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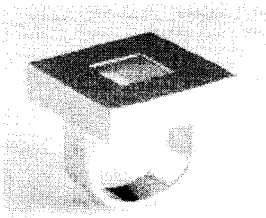


그림 7. Friedrich Becker, 반지, 18k 금,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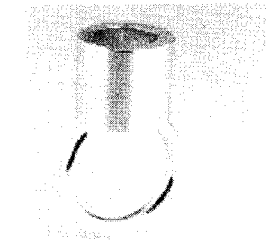


그림 8. Friedrich Becker, 반지, 18k 금,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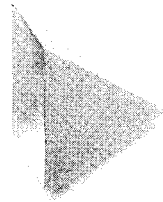


그림 9. Giampaolo, Babetto, 브로치, 금,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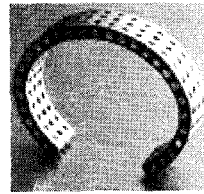


그림 10. 우진순, 팔찌, 은, 2006

또한 미니멀리즘은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오브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상(像)을 대상화하려는 전통 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작가 혹은 디자이너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그 대신 사물의 존재를 직접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를 시도한다.

나. 물리적 형태의 기본성

형태는 단순한 기하학적 원형(原形)인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의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진다. 형태의 상대적인 관계와 정의된 시각에 의하여 중심이 생겨나며, 또한 중심으로부터 방향을 만들어낸다.

60년대 예술가들은 의미를 비워낸 공간에 기본적으로 요소적인 상징만을 보여줌으로써 외형(형태)을 줄이기 시작했다. 즉 조각가들은 조각을 기하학적, 형이상학적 구조로 줄였고, 화가들은 그림을 수학적, 형이상학적 구조로 축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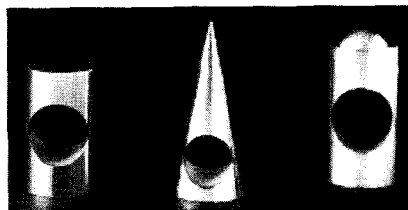


그림 11. 원, 삼각형, 원기둥의 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홍지희, 반지, 은, 1999

장신구에서 기본 형태화되어지는 이러한 특성은 미니멀 아트를 통해 긴요한 요구로 받아들여졌고, 현대 장신구에서는 단순함과 기하학적 형태가 맞물려 세련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기본 형태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니멀리즘 작가이자 비평가인 도널드 주드(Donald Judd)는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이용한 기하학적 디자인에 대하여 “직사각형은 형태 그 자체이다. 즉 그것의 내부 혹은 위에 있는 무엇이든 그들의 배열을 제한하고 결정한다[7].” 라고 기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는 회화에서 주로 쓰이는 캔버스에의 기본 형태이기도 한 직사각형을 모든 허상화의 문제를 종식시킬 근본적인 형태로 자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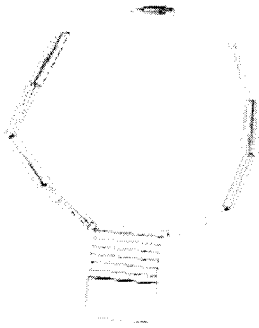


그림 12.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한 장신구
나움 슬루츠키, 목걸이, 금, 1929

다. 장신구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

장신구속에 나타난 미니멀 아트는 작가 혹은 디자이너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려고 하였고,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형태를 근본적인 물체로 환원시킴으로써 종래의 회화와 조각 개념간의 경계선을 와해시킨다.

장신구에 나타난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단순성과 단일성, 반복성 그리고 순수성을 바탕으로 살펴 보았다.

a. 단순성과 단일성

이미지와 조형성을 최소화하여 기본적인 구조로 환

원하기 위하여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한다. 따라서 감상자로 하여금 형태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분이 아닌 전체의 강조, 원형이나 정육면체 등의 단일 입방체의 사용, 단색의 사용 등으로 단순함을 강조한다.

단순성(Simplicity)은 요소적인 간결한 성격과 상반되게 그 의미에서는 많은 것을 내포한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조각가이자 안무가로 예술적 개념과 미적 개념에 대하여 여러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에 의하면 “형태의 단순성은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관계성에 질서를 부여하는데, 이는 크기, 비례 등의 관계성들에 의해 더욱 밀착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8] 즉 관계속에서의 질서는 단순성을 증대시키면서 인간의 시·지각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통일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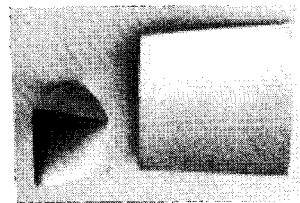


그림 13. 단순성을 강조한 장신구 Schmuck Magazine
96, 팬던트와 반지, 은, 1996. 6, p.50

위의 [그림 10]처럼 현대 장신구속에 나타난 미니멀리즘의 단일성, 단순성은 모든 은유적인 의미를 제거한 뚜렷한 원형 등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중성적이고 물개성적인 작품을 펼치는 단일성의 개념자체를 제시하는 방법인 것이다. 또한 규격이나 색채 역시 단색을 사용하였고, 은이라는 공통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형태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대상에 있어 요소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응집된 형태의 요소와 재료 그리고 언어는 각 형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단일화 할 수 있게 해준다.

b. 반복성

미니멀 아트는 어떤 물체간의 계층적 위계 관계를 허

용하지 않는 비관계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반복성을 가진다. 비관계적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태는 대비나 상호 영향적 작용을 하기보다는 반복과 연속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질서는 내재적이거나 이성적 질서가 아닌 단순한 질서이며 마치 연속하는 것처럼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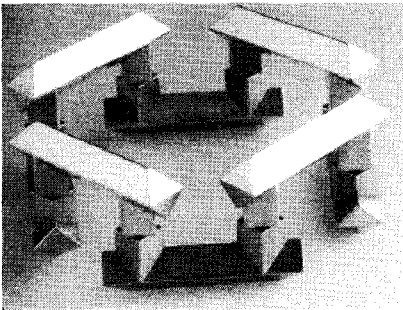


그림 14.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한 장신구
Friedrich Becker, 팔찌, 화이트 골드, 1994

이것은 논리적으로 결정된 중심이 없는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초점 개념의 파괴를 의미하며, 대량 생산에 의한 일정한 모양과 크기에 계층적 차별이 없는 동등한 관계를 반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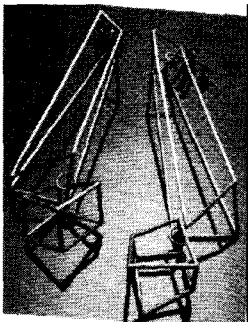


그림 15. 단순한 형태가 반복된 장신구
Schmuck Magazine 96, 귀걸이, 금, 1996

c. 순수성

미니멀 아트는 본질적으로 이미지나 수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것에 관심을 표명하고 본질을 추구하려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대상의 본연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단일한 색채, 단순한 형태, 오브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순수성이 장신구 속에서는 단순한 디자인과 단일색채, 친환경적인 재료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아래 [그림 16]은 순수한 은과 나무를 소재로 하여 디자인 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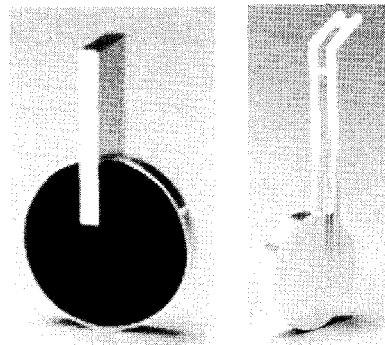


그림 16. 단일한 재료와 단순한 형태를 이용하여 오브제성과 순수성을 표현한 장신구
이주현, 작은 조각품들, 팬던트, 은·나무, 2005

III. 결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신분이나 부(富)의 상징,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신용(護身用)으로 착용되어지던 장신구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의 기호나 개성을 충족시켜 주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들의 생활주변에서는 조형미를 갖춘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보다 자유로워진 장신구의 표현과 동시에 독특한 형태, 새로운 기법, 다양한 재료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1937년 존 그래함에 의해 처음 정의된 미니멀리즘은 작가의 주관을 배제함으로써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제시하며,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형태를 근원적인 물체로 환원시키는 예술 사조로서 건축과 가구디자인에서 특히 다른 예술사조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대장신구에는 '미니멀리즘'이라는 사조가 건축이나 가구디자인만큼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가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으나, 많은 장신구 작가나 디자이너들이 '단순함', '간결한 패턴의 반복' 등의 작업을 통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미니멀리즘의 양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건축과 가구디자인에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의 양상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이라는 사조가 가지는 특징적 성향 연구를 통해 미니멀리즘 장신구 디자인의 특성과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 일상에서의 조형적인 모든 활동들의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니멀리즘 장신구는 금속·나무·돌 등의 단일 소재에 색상 역시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는 원·기둥·네모 등 기하학적이거나 단순한 형태를 특징으로 나타냈다. 이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미니멀리즘 가구나 건축에서도 볼 수 있었던 명료성, 반복성, 단순성 등을 바탕으로 한 미니멀리즘의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 된다.

치장과 장식을 하기위한 소품으로 인식 되어 온 '장신구(주얼리)'가 미니멀리즘을 통해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성을 강조하였을 때 현대인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비움'의 미학일 것이다. 사물을 가장 단순하고도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하는 미니멀리즘 장신구는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채우는 것' 못지않게 '잘 비워내는 것'의 가치를 일깨우며, 그 단순한 형태에 함축된 큰 의미를 대상에게 전달하는 정서적 매개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원, 1986.

- [5]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월간귀금속과 보석, 3월호, p.44, 1985.
- [6] 최준자, 장신구의 세계, 예경, 1992.
- [7] 강태희, "미니멀리즘",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제3집, p.13, 1991.
- [8] 정승호,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화에 대한 연구-모더니즘의 정신성과 미니멀리즘의 양식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8.

저자 소개

이 주 현(Joo-Hyu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건국대학교 공예미술학과 (미술학사)
- 2003년 8월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금속디자인학과 (디자인 석사)
- 2007년 3월 ~ 현재 : 대림대학교 재료정보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공예, 주얼리 디자인

참고 문헌

- [1] K. Baker, 김수기, *Minimalism*, 열화당, pp.16-17, 1993.
- [2] 한혜진, *현대미니멀리즘 건축의 형성과 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3] 황호근, *한국장신구 미술*, 일지사, 1978.
- [4] 김연미, *장신구의 주술적 요소와 상징*, 서울대학